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자유한국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오늘날 우리는 풍요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괴롭히기도 한다. 풍요가 수많은 치유를 주기도 하지만 각양각색의 질병을 안겨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배고파 죽었지만 오늘날은 너무나 풍요로워서 죽는다. 풍요가 과식을 불러오고 그 과식이 암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수많은 병원들이 즐비하다. 일반병원은 물론 요양병원들까지. 그래서 오늘날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어간다고 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각종 정신병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비율로 정신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세상사 뒤죽박죽이다. 누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누가 악한인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다. 아귀들의 전쟁이다.

가장 가깝다는 가족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이 설날이었다. 행복하게 지낸 가정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았다. 혈육이기에 오히려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 기저에 깔린 것은 주로 돈이었다.

그러기에 신앙적인 각종 신보다는 물신이 최고라고 하잖은가. 아무리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해봐야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인데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돈만 있으면 예쁜 옷도, 집도, 차도,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그리고 사랑까지도. 물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는 것 아닐까.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다. 정치인들은 또 어떤가. 세상의 흉악한 것들은 모두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똑같은 관점이나 현상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싸운다.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각색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만한 합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 전용기 구입 건을 봐보자.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유 보잉 747 여객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임차기간은 2020년 3월까지다. 때문에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제작기간이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한다.

현재의 전용기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전용기는 아니다. 낡은 것을 빌려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상의 해외 순방 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초라하다. 위험부담도 있다.

그런데도 이 말이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반대다. 이유답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 정부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적극 구입을 부르짖었었다. 하지만 이때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용기 도입에 과거 야당의 논리로 반대했다. 결국 한나라당이 사과한 뒤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잉사와의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었다. 그런데 야당이 되니까 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사실 이번에 도입결정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사용은 별로다. 결국 다음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국적인 의미에서 추진하려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정신병은 작금의 사회에서 괴질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인 아귀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풍요가 곧 밝은 사회를 만드는 등식은 아닌 것 같다.

社 說

음주운전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첫 번째 위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져 위반이 반복될수록 준법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최근 5년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모든 운전자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으며 과속운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중과속(20Km/h 초과)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았으며,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이 음주운전자에 비해 약 11배 높았으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교통사고를 더 많이 야기했다.

연평균 3회 이상 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전체 위반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이들의 1인당 과속운전 횟수는 11배였으며 교통사고 야기 건수는 2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위반자부터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번 단속되기까지에는 50여 회의 위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상습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알코올중독에 대한 검사와 치료, 음주 시동 잠금장치 등을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기 고

임 성 열 무안경찰서 경무과 경위

아동학대 근절,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최근 보고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인 아동학대 관련 뉴스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끔찍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을지 모르나 사회 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구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부모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75%는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계부·계모 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무려 80%에 이르러 사실상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마약·알콜 등 중독문제, 부부 및 가족갈등 사례가 전체의 30%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아직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부모가 충족되지 못한 개인의 분노를 자녀에게 푸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복만 중시하는 개인주의 성향 강화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애정을 품지 못하고 자신의 행복에 자녀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어린 아이들을 방치하고 폭행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부모들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방법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함께 행복하기 위한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아동학대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부모들에게 갑작스러운 인식 전환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오는 4월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 결석 아동, 계절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아동, 몸에 상처나 멍이 많은 아동 등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찰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고, 경찰서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신중하고 세세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아동학대 행위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상담·신고를 통해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아동학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할 때이다.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龍	용	용
師	스승	사
火	불	화
帝	임금	제

龍 師 火 帝

▷뜻 : 복희씨(伏羲氏·伏犧氏)는 용(龍)으로써 벼슬을 기록(記錄)하고, 신농씨(神農氏)는 불로써 기록(記錄)했음.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 집 국 (062) 222-5547
팩 스 (062) 222-5548
광 고 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 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